

## 危機의 哲學

朴致祐

一, 序論

二, 主體的 把握이란?

三, 危機란?

四, 危機의 克服은?

一, 序論

大體 危機라는 고향聲이 오늘과 갖치 切實히 들여지는 時代가 또 잇엇을 가? 危機가 矛盾으로서 나타나는 特定の 時期라면, 眞實로 現代야말노 가장 事實로서 危機일 것이다. 何故 오하면 人類의 歷史에 잇어서 現代와 갖치 敝化된 矛盾으로 飽和된 時代를 우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危機에 잇다는 것, 危機에 산(生)다는 것, 危機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것들은 現代에 살고 잇는 우리에게 賦課된 不可避한 運命이다. 이 運命으로부터의 完全한 解脫은 다만 죽엄(死)으로써만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運命으로부터의 決定的인 逃避이고 삶 生의 싸움에 잇어서의 全的 敗北을 意味함에 지내지 못할 것이다. 살(生)고 잇는 우리가 決코 이러한 길(道)을 取할 수 없음은 말할 必要 조차없다. 何故오하면 살고 잇는 우리는 살려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살고 잇다는 事實은 살려고 애를 쓰고 잇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갖치, 살고 잇는 우리가 살려는 우리인 以上, 우리의 取할 길은 다못 이運命을 率直히 承認하야 걸머짐과 同時에, 이 運命과의 勇敢한 싸움을 敢行하는 것, 이것 밖에는 없다. 그러치 않으면 죽어야 하갯기에 말이다. 이 곳에 現代人이 가진 가장 큰 悲劇과 자랑(誇)이 잇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갖치 危機에 잇으며 危機에 살며 危機와 싸워야할 不可避한 運命에 던져진 存在이다. 그러면 도대체 如何히 하면 이 싸움에 잇어서 勝利를 얻을 수 잇을까? 무엇으로써 일까? 危機一般에 對한 欺瞞的인 판단중지 (opoché)에 依하야써일까? 또는 宗教的인 逃避로써일까? 아니다. 우리의 主張은 이러하다. -危機의 克服은 다못 實踐에 依하야서만 可能하다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自然 더 큰 問題에 逢着하게 된다. 그것은 -何故로

危機의 克服은 다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한가? 如何한 理由로 實踐만이 危機克服의 唯一의 手段인가? 여기에 우리는 實踐에 依한 危機克服의 可能性의 問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한 最後的인 解答은, 다못 「危機」와 「實踐」, 이 두 概念의 本質的이고 構造的인 分析만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이 貧弱한 小論에 있어서 나에게 賦課될 課題는 이러하다. - 「危機」란 一般으로 어떤 狀態를 말함인가? 「實踐」이란 어떤 것인가? 何故로 危機의 克服은 다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한가? 等等.

## 二, 主體的 把握이란?

危機란 一般으로 「矛盾」으로서 나타나는 「特定の 時期」를 말함일 것이다. 「矛盾」이 없는 곳에는 危機란 처음부터 있을 理가 없다. 「矛盾」은 그럼으로 眞實로 「危機」의 根本構造에 屬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客體的인 存立 그대로의 「矛盾」의 特定の 時期를 危機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變換機 또는 過渡期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아직 參된 意味로서 「危機」라고는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反之, 危機란 一般으로 客體的인 矛盾이 主體的으로 把握되는 特定の 時期를 말함이다.

그럼으로 問題는 自然 이렇게 된다. -大體 主體的 把握이란 어떤 것인가? 主體的 把握이란 事物을 身命을 던져서 情熱的으로 把握하는 把握 樣式을 말한다. 事物을 로고스(Logos)的으로가 아니라 파토스(Pathos)的으로 把握하는 것, 理性的으로가 아니라 情熱的으로 把握함을 말함이다. 事物을 學的인 「認識」의 對象으로 죽은 對體로서가 아니라, 生活的인 「交涉」의 對象으로 對者로서 把握함을 말함이다. 아니 한거름 더 나가 單純한 對者로서 뿐만 아니라 抵抗, 威脅으로서의 敵, 원수인 對者로서 把握함을 말함이다. 아니 더 한 거름 나가서 單純히 敵으로서 바라 봄에 끈치 않고, 좀 더 積極的으로 事物과의 緊張된 對立- 即 事物과의 「矛盾」을 깨트리고 事物 그것을 向하야 端的으로 突入하야 이것과 皮투성이 되도록 싸워서 이것을 完全히 내 것으로 克服하는 이러한 情熱的인 冒險을 「行動」을 通하야, 또는 「實踐」에 있어서 把握하는 것인 以外の 아모 것도 아니다.

이리하야 主體的 把握이란 一般으로 어떤 把握을 말인가가 대강 짐작될 줄로 안다. 그것은 身命을 던져서 敢行하는 情熱的인 把握樣式이다. 나는 이러한 把握樣式으로 다음과 갓흔 세 階段을 난호려 한다.

1. 交涉的 把握
2. 矛盾的 把握
3. 行動的, 實踐的 把握

以上은 主體的 把握을 把握에 있어서의 情熱의 強弱-따라서 把握있어서의 誠實性(Ernstheit)의 強弱에 따라서 한 便宜上 區別이다. [(註)把握一般에 있어서의 眞理性(Wahrheit)과 誠實性(Ernstheit)에 對한 詳論을 避하련다. 다만 여기에서는 一般으로 로고스의인 把握은 眞理性을 目標로 出發하는데 反하여 파토스의 把握은 一般으로 誠實性을 目標로 한다는 것, 及 一般으로 眞理性이 極하는 곳에는 別서 誠實性을 像想하게 됨과 同時에, 誠實性이 極할 때는 別서 眞理性의 領域에 한 거름 디려 늦는다는 兩者의 辯證法的 關聯을 暗示함에 끈치련다.] 如何든 主體的 把握에 있어서 把握의 情熱-따라서 誠實性은 交涉的 把握을 低段으로 하고 矛盾的 把握을 다음으로 삼아서, 行動的, 實踐的 把握에 이르러서 最高에 達한다. 그럼으로 實踐은 主體的 把握의 最高 階段이고 極이다. 그것은 가장 情熱的인 싸움이 遂行되는 터(場)이며, 一般으로 克服이란 現象이 가장 眞正한 意味로서 結果되는 唯一의 地盤이다. 克服이란 가장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 본다면 그것은 다못 가장 情熱的인 싸움을 通하여서만 結果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一般으로 가장 眞正한 意味로서의 克服이란 것은 다못 實踐에 있어서만 可能的 것이다.

나는 以上 事物의 主體的 把握을 說明하야 거기에 세 가지 階段을 區別하였다. 이것을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이러하다. 事物을 主體的으로 把握한다는 것이 事物을 로고스의으로가 아니라 파토스의으로 把握하는 것인 以上, 事物을 이 갖치 把握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事物을 事物의 客體的 存立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와의 切實한 交涉, 산交涉, 生活的인 「交涉」을 通해서 把握하여야만 될 것이다. 事物을 學的으로가 아니라 生活的으로 把握하여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交涉的 把握」에 있어서는 事物은 別서 죽은 對體로서가 아니라 산 對者로서 나타난다. 事物을 로고스의으로 把握할 때에도 勿論 그곳에도 把握者와 被把握體 사히에 一種의 關係가 成立될 터이나 그러나 이러한 關係는 交涉的 關係라기 보다는 오히려 態度的 關係라고 불으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交涉的이란, 훨씬 人間的이요, 情意的인 印象을 주는 概念이기 때문이다. 모-든 로고스의인 把握은 本來 態度的이나 모-든 파토스의인 把握은 적어도 交涉的이다. 모-든 所謂 學的인 把握은 本來 態度的의 이나 이와 反對로 모-든 生活的인 把握은 적어도 交涉的이다. 쓰러지는 오막사리 한태를 바라볼 때, 態度的인 觀察은 이것을 한 개의 傾斜된 建築物로 받게 認識않지만, 交涉的인 把握은 이것을 굽주리는 食口들의 깃들 곧으로서 體驗한다. 交涉的-態度的, 이 兩者는 마치 事物의 再表現에 있어서의 繪書와 寫眞과 같은 關係에 선다. 그럼으로 事物을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면 우리는 態度的으로가 아니라, 적어도 交涉的으로 把握하여야 될 理由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事物을 單只 이와 갖치 交涉的으로만 把握함에 긋쳐서는, 우리는 아직 힘 있게 主體的으로 把握했다고는 못할 것이다. 交涉的이란 語句는 아직도 和協的이란 意味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主體的 把握이 身命을 던져서 情熱的으로 敢行하는 把握인 以上 거기에는 事物과 우리와의 間的 單純한 和協的인 交涉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身命을 던져서 把握하는 것은 一種의 冒險이 아니었는가. 이 갖흔 冒險인 以上, 그 곳에는 當然히 「싸힘으로서의 交涉」도 像想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리하여 事物을 좀 더 힘 있게 主體的으로 -다시 말하면 좀 더 강한 情熱로써 把握하려면, 우리는 이 事物을 單純히 友人으로써가 아니라, 敵으로써 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事物은 對體로서 나타나지 않음은 말할 必要 조차 없거니와, 交涉的 把握에 있어서와 같은 單純한 對者로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事物은 여기에서는 敵으로서, 원수로서, 우리와 날카로운 矛盾關係에 서게 된다. 이리하여 事物을 좀 더 힘 있게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면, 우리는 事物을 矛盾的으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事物을 그와 날카로운 矛盾에 서서 體驗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事物을 이 같이 矛盾的으로 把握하는데 긋쳐서는 우리는 아직도 참으로 主體的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激烈한 情熱로써 身命을 던지고 把握하였다고는 못할 것이다. 事物을 矛盾的으로 把握한다는 것은 事物을 敵으로서 바라보고, 원수로서 咀呪하는 것인 以上, 그곳에는 원망과 反目は 있을지언정 아직 싸힘으로서의 行動은 없는 것이다. 或은 反目으로서의 싸힘은 있을지언정, 行動으로서의 싸힘은 아직 없는 것이다. 事物과 우리와의 無氣味한 緊張은 있을 망정, 이 緊張을 깨트리고 突入하는 飛躍은 아직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反目 即 矛盾을 깨트리고 端的으로 突入하여 싸힘으로서, 事物을 完全히 내 것으로 克服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身命을 던져서 把握했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事物을 이 같은 決定的인 싸힘에서 把握하는 것이 이 곳 行動, 또는 實踐인 것이다. 그럼으로 事物을 가장 힘 있게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면, 우리는 行動的, 또는 實踐的으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以上으로서 主體的 把握이란 어떤 것인가가 明白해진 줄 안다. 主體的 把握이란 身命을 던지고 敢行하는 情熱的인 把握 樣式이다. 나는 以上에서 그것이 가진 情熱의 程度에 따라서 다음과 갖흔 세 가지 階段을 난호였다. 即-

- 一, 交涉的 把握
- 二, 矛盾的 把握

三, 行動的, 實踐的 把握.

그리면 이 分析이 우리의 只今の 問題인 危機와 그의 克服에 對하여 어떠한 意義를 가질 것인가?

### 三, 危機란?

危機란 一般으로 客體的 矛盾에 있어서 나타나는 特定の 時期를 말함이다. 여기에 構造的인 것은 勿論 客體的 矛盾이다. 이것 없이는 危機란 처음부터 나타날 理萬無이기 때문이다. 客體的 矛盾은 實로 危機의 根本構造에 屬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客體的 矛盾 그대로를 早急히 危機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何故오하면 客體的인 矛盾은 何時何處를 不問하고 許多히 存在함에도 不拘하고, 이 모든 矛盾으로부터 다 갖치 危機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客體的 矛盾이 危機로서 나타나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손으로 把握되어야 한다. 그러나 把握된다 하더라도, 그것(客體的 矛盾)이 逻辑的으로, 理性的으로 把握되는 限, 거기에는 이 矛盾이 危機라는 切迫된 感情을 相伴한 現象으로서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成立될 主體와 客體(即 矛盾)과의 關係는 (우리들의 用語로 하면) 態度的인 把握關係에 지나지 못한다. 矛盾이 이처럼 우리와의 生活的인 交涉을 떠나서 態度的으로 把握됨에 拮친다면, 그곳에는 矛盾에 對한 冷靜한 科學的인 「認識」은 成立될지언정 危機와 不安을 相伴하고 肉迫하는 危機란 「體驗」은 잇을 수 없을 것이다. 矛盾이 危機로서 나타나려면, 적어도 그것(矛盾)이 「交涉的」으로 把握되는 때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客體的 矛盾을 單只 죽은 對體로서가 아니라, 對者로서 生活的인 交涉을 通하여 把握함이 없이는 矛盾은 危機로써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危機란 그럼으로 矛盾이 主體的으로 把握될 때만 나타날 수 잇는 現象이며, 따라서 여기에 잇어서는 矛盾은 무엇보다도 먼저 交涉的으로 把握되어야만 한다. 事實 矛盾이 態度的으로 把握되는 限, 그것은 單純한 外的인 對體로서만 把握될 터임으로, 이리케 把握되는 矛盾은 決코 힘으로서의 矛盾, 矛盾, 躍動하는 矛盾, 矛盾다운 矛盾이라고 못할 것이다. 矛盾의 矛盾다운 本質은, 그것이 산 힘(力)이라는 點에 잇을 것이다. 이 산 힘으로서의 機能을 喪失한 矛盾은 參된 意味로서의 「矛盾」이라기보다도, 죽은 「對立」에 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矛盾을 矛盾다운 矛盾으로서 把握하려면, 그것을 外界에 置棄된 그대로의 矛盾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肉迫하는 矛盾, 나의 矛盾으로서-다시 말하면 交涉的으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危機에 잇어서 把握되는 矛盾은 언제나 이 갖치 交涉的으로 把握된 矛盾이며 산 矛盾, 躍動하는 矛盾이다. 이것이 危機가 가진

첫째 特徵이다. 나는 便宜上 이것을, 危機에 있어서의 矛盾의 生活性 (Lebendigkeit)이라고 부르려다.

以上에 依하여서, 우리는 危機에 있어서 나타나는 矛盾의 類달리 날카로운 性格을 알 수 잇었다. 그것은 客體的 矛盾이 交渉的으로 把握될 때에 가지는 性格이다. 그러면 危機에 있어서 客體的 矛盾이 이 갓치 交渉的으로 把握된다는 것-이것은 具體的으로는 어떤 狀態를 말함일까? 客體的 矛盾이 交渉的으로 把握될 때, 그것은 어떠한 具體로서 出現하는가? 그것은 客體的 矛盾이 「社會的인 矛盾」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함이다. 客體的 矛盾이 交渉的으로 把握될 때에는, 그것은 「自然의 矛盾」으로서가 아니라 「社會의 矛盾」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社會란 本質上 態度的인 概念이 아니라, 交渉的인 概念이다. 社會란 「自然」이 交渉的으로 把握될 때만 나타날 수 잇는 現象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危機의 第二의 特徵은, 危機에 있어서 把握되는 矛盾은 언제나 이 갓치 社會的인 矛盾으로서 把握되는 矛盾이란 點이다. 이것을 나는 便宜上 危機에 있어서의 矛盾의 社會性이라고 부르려다. 危機가 恒常單純히 「社會的 危機」라는 名稱으로서 불려지는 原因은 여기있다. 그것은 危機에 있어서는 矛盾은 언제나 一般으로 먼저 社會的인 矛盾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以上 나는 客體的 矛盾이 交渉的으로 把握됨으로서, 生動性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自然의 矛盾」됨을 떠나서 「社會의 矛盾」이란 새로운 性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危機의 全貌가 明白해지었다고는 못할 것이리라. 우리는 좀 더 危機의 構造를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論의 처음에 있어서 나는 事物의 主體的 把握을 規定하여, 그것을 身命을 던져서 敢行하는 事物의 情熱的 把握이라고 했다. 同時에 나는 事物을 이 갓치 把握하려면, 첫째로, 적어도 交渉的으로 把握해야만 된다고 하였다. 그와 同時에 좀 더 힘 잇게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면, 交渉的으로만은 不充分하여, 적어도 矛盾的으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主體的 把握에 있어서의 이 過程의 順序를 危機에 適用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 잇을 것이다. 即 客體的 矛盾이 交渉的으로 把握됨으로 그것이 社會的인 矛盾으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社會的인 矛盾 그것만을 가지고 곧 이것을 危機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社會的인 矛盾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深刻히 흔드는 脅威로서 敵으로서 나타날 때만, 우리들은 危機라는 切迫한 느낌을 받을 수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인 矛盾이 (우리의 用語로는) 矛盾的으로 把握될 때만이, 그것은 危機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은 社會

的 矛盾과 自身과의 사히에 深刻한 矛盾과 撞着을 自覺함이 없이는, 決코 危機를 感得하지 못할 것이다. 危機란 그림으로 眞實로, 社會的인 矛盾이 矛盾的으로 把握되는 時期를 말한다. 危機에 있어서 社會的 矛盾이 언제나 이 가치 矛盾的으로 把握된다는 것-이것은 危機가 가진 第三의 特徵이다. 이것을 나는 便宜上 危機에 있어서의 矛盾의 二重性이라고 부르려다. 社會的 矛盾과의 矛盾- 即 矛盾과의 矛盾-이 矛盾의 二重性은 危機가 가진 다른 두 가지의 特徵- 即 矛盾의 生動性과 社會性-과 區別되어 最後的인 特徵이다.

以上 나는 客體的 矛盾이 如何한 過程을 거쳐서 把握될 때, 危機가 나타나는가를 說明하였다. 要言하면 客體的 矛盾이 危機로서 나타날려면, 그것은 로고스의, 또는 態度的으로가 아니라, 다음과 가치 主體的으로 把握되어야만 한다. 即 첫째로 그것은 交渉的으로 把握됨으로서, 社會的 矛盾이 되고, 다음으로 이 社會的인 矛盾이 다시 矛盾的으로 把握되어야만 危機가 危機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나는 實例를 들어서 說明하려다. 假令 「貧」과 「富」와의 矛盾을 例로 들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即 이 矛盾 (貧과 富)을 單只 로고스의으로만 把握한다면 이 矛盾은 單純한 「自然의 矛盾」-例컨대 數學에 있어서의 正數와 負數와의 사이에 成立되는 數學的인 矛盾으로 받게는 把握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이것이 主體的으로 把握될 때에는 훨씬 다른 性格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첫째로 이 矛盾을 交渉的으로 把握한다면, 그것은 單純한 十와 一이 아니라, 富者와 貧者 사이에 成立되는 生活的인 矛盾으로서 나타남으로, 그것은 社會的인 矛盾으로 變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矛盾이 이 가치 社會的인 矛盾으로서 나타난다 해야 그것이 대번에 危機인 것은 아닐 것이다. 事實, 人類의 歷史를 보면, 貧者, 富者는 何時何處를 不問하고 存在하였을 터임에도 不拘하고 特히 特定の 時期(例를 들면 現代)만을 危機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서 일까? 그것은 다른 여러 時期에 있어서는 아직 이 矛盾이 「激化」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矛盾이 激化된다는 것은, 主體的 意味로는, 어떤 것을 意味함일까? 그것은 矛盾이 激化된 時期에는 사람은 이것을 矛盾的으로 把握하게 된다는 것-아니 차라리 把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인 矛盾(例컨대 貧과 富)이 激化하면 할 수록 사람은 이 激化된 矛盾 앞에 戰慄하게 된다. 이 激化된 矛盾은 다른때의 矛盾과는 判異하게 우리의 生活과 목숨을 深刻히 威脅하는 敵으로서-咀呪할 원수로서 -肉迫하는 存在로서 나타난다.-털 끝만한 同情도 讓步도 許치 않는 원수로서-. 危機란 眞實로 社會的 矛盾이 激化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의 生命을 威脅하는 敵으로서 뼈에 사모치게 體

驗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現象이다. 그리하여 이 갖치 生命을 威脅하는 敵으로서 뼈에 사모치게 體驗한다는 것-이것은 우리가 이 社會的 矛盾을 그와 날카로운 矛盾에서 把握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리하여 矛盾이 激化될 때 우리는 그것을 矛盾的으로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社會的인 矛盾과의 矛盾的 自覺!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眞正히 危機를 感得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自覺을 喚起시킬 수 있는 時期만이 危機란 말이다. 나는 本論의 처음에 危機란 一般으로 矛盾으로서 나타나는 特定の 時期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特定の 時期」란 것은 그림으로 客體的으로는 矛盾이 激化된 時期이며, 따라서 主體的으로는 矛盾이 矛盾的으로 把握되는 時期를 말함이다. 그림으로 危機의 客體的인 定義는, 危機란 客體的 矛盾이 激化한 時期를 말함이라고 할 것이며, 主體的인 定義는 -危機란 社會的인 矛盾이 矛盾的으로 把握되는 時期를 말함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危機가 가진 矛盾의 二重性を 볼 수 있는 것이다.

危機에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不安이, 다른 어떤 種類의 不安보다도 強忍한 理由는, 危機가 가진 이 矛盾의 二重성에 있는 것이다. 不安이란 一般으로 「矛盾意識」이다. 矛盾에서 받는 主觀의 印象이다. 「對立」에서 받는 主觀의 印象이 로고스의임에 反하여, 「矛盾」에서 받는 主觀의 印象은 一般으로 파토스의인 意識이다. 不安은 그림으로 이 같은 印象임으로, 그것은 언제나 「氣分」이다. 危機에 있어서 받는 不安은 무엇보다도 먼저 對象과 主觀과의 矛盾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危機에 있어서 받는 不安이 다른 어떤 不安보다도 強忍한 理由는, 危機에 있어서 對象이 벌써 矛盾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危機에 있어서의 不安의 特徵은 그림으로 그것이 二重의 矛盾으로부터 結果되는 氣分이라는 點에 있다. 아무러한 欺瞞도 無用이다. 이 不安의 克服은 그림으로 다만 이 二重의 矛盾의 克服-따라서 危機그것의 克服을 떠나서는 不可能한 것이다.

以上으로서 危機란 大體 어떤 것인가를 대강 짐작하였을 줄 안다. 그것은 客體的 矛盾이 主體的으로 把握되는 特定の 時期이다. 다시 말하면 矛盾이 矛盾的으로 把握되는 時間이다. 그러므로 危機의 克服은 다못 이 二重의 矛盾의 克服이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면 一般으로 矛盾을 克服할 武器는 어떤 것일까? 나는 이러한 武器는, 「實踐」을 내놓고는 없다고 主張하련다. 矛盾의 克服은 -따라서 危機의 克服은, 다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한 것이다. 如何한 캄푸라-지도 無用이다. 如何한 祇禱도 無用이다. 實踐은 本質上 이러한 役割을 敢行할 唯一의 存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또 한 어떤 意味로서일까?

#### 四, 危機의 克服은?

事物의 主體的 把握에는 다음과 같은 三階段이 있었다.

- 一, 交涉的 把握
- 二, 矛盾的 把握
- 三, 行動的, 實踐的 把握

그리하여 事物을 가장 情熱的으로 生命을 차저서 把握하려면-다시 말하면 事物을 「克服」하려면, 이 세 가지 中에서 最後의 階段 即 行動的, 實踐的 把握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고 했다. 行動, 實踐을 통해서 把握되는 事物은 이 갓치 激烈히 把握되기 때문에, 그것은 單純히 把握됨에 끝치지 않고, 實로 克服的으로 把握되는 것이다. 行動, 實踐은 그럼으로 언제나 이 갓치 事物을 克服的으로 把握하는 把握樣式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危機에 適用해 생각해 보자. 危機란 客體的 矛盾이 交涉的으로 把握됨으로서 나타나는 社會的 矛盾을, 다시 矛盾的으로 把握함으로서 나타나는 現象이었다. 그러면 이 갓치 把握됨으로 危機로서 나타나는 矛盾그것이, 다시 한 거름 더 나가 第三의 階段, 即 행동不居, 實踐的 把握에서 把握될 때면, 그것은 어떠한 될 것일까? 이는 더 말할 것 없이, 把握되는 矛盾이 「克服」된다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客體的 矛盾을 가장 深刻하게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면 우리는 이것이 다 못 우리들의 生命을 뼈에 사모치게 威脅하는 원수로서 바라 봄에 끝치지 말고 (이러케 把握하는 瞬間이 即 危機인 것이다), 이 원수로서 對해지는 社會的 矛盾을 向하여 突入하여 싸워서, 이것을 完全히 내 것으로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敵에게 突入하여 싸워서 克服하는 것-이것은 事物을 行動的, 實踐的으로 把握하는 主體的 把握이었던 關係上, 우리는 客體的 矛盾 따라서 社會的 矛盾을 「克服」하려면, 이것을 行動, 實踐을 통해서 把握하지 않으어서는 不可能한 理由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斷言하련다. -主體的 把握의 三階段 中에서, 客體的 矛盾이 矛盾的 把握의 階段에서 把握될 때, 그것은 危機로 나타나고, 다음의 階段인 行動的, 實踐的 把握의 階段에서 把握될 때 이것(矛盾)은 「克服」되는 것이라고. 矛盾을 바라만 보고 고향만 치지 말고, 短刀直入으로 이 矛盾의 過中에 突入하여, 이것과 皮투성이 되도록 싸움으로서 把握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矛盾을 克服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이렇게 斷言한다. 一般으로 克服은 다 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 따라서 矛盾의 克服은 다 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 따라서 一般으로 危機의 克服은, 다 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 그러나 危機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진 矛盾의 二重性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어서의 克服은 다른 如何한 克服보다도 至難인 冒險이 必要하다는 것

도 이저서는 안된다.

以上으로서 如何한 過程을 밟아서 客體的 矛盾이 社會的 矛盾이 되고 다시 그것이 危機로서 나타나는가와 同時에 이 危機가 克服될 것인가를 짐작하였을 줄 안다. 이 過程은 客體的 矛盾이 主體的으로 把握되는 全道程 바로 그것이다. 交涉的 -矛盾的 -行動的, 實踐的…….

最後로 行動, 實踐, 이 두 概念의 關係와 區別을 明確히 하는 것은, 우리의 所論을 一層明瞭히 하는 所爲일 것이다. 兩者의 關係는 이러하다. -모든 實踐은 行動이다. 그러나 反對로 모든 行動이 實踐인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한 바와 갖치 적어도 「메타·로곤」(meta logon)이란 性格을 가진 行動만이 實踐이라고 할 것이다. 希臘語로 meta logon은 獨逸語 nach Logos라는 意味인 故로, 「메타·로곤」인 行動이란 말은, 로고스에 則한 行動, 理性에 依한 行動, 理論에 基한 行動이란 意味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인 것을 內包한 行動만이 實踐이란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語는, 무슨 永却不易의 宇宙精神, 世界理性 等과 갖흔 形而上學的인 意味로 取擇될 것이 아니라, 「파토스」에 對立하는 概念으로서의 「로고스」를 가르키는 것이다. 그럼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메타·로곤」이란 말에 있어서의 「로고스」는, 單純히, 「情熱的」인 것에 對하는 「理性的」인 것, 또는(이 兩者의 外的 發現인) 「行動」에 對하는 「理論」이란 意味로 取하는 것이 正當할 것이다. 그럼으로 「單純한 行動」은 本來 「파토스의」인 것이지만 「實踐인 行動」은 「로고스의」인 것을 內包한 「파토스의」인 것이란 말이다. 「單純한 行動」에도 勿論 「目的 意志」가 作用하고 있을 것은 事實이다. 그러치 않으면 그것은 無自覺한 機械的인 「運動」일 수는 있어도 「行動」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行動」이란 單純한 「動」이 아니라 「行-動」이며, 이 「行」이란 字는 元來 單純한 「動」과 區別되어, 人間的인 自覺的인 意味를 가진 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갖치 目的 意志이라고 하더라도, 이 갖흔 行動은 全部가 「메타·로곤」이란 性格을 가진 것은 아니리라. 例컨대 「妄動」, 「暴動」과 갖흔 行動은 目的 意志의이면서도 우리는 이 갖흔 行動을 로고스의인 것을 內包한 行動, 다시 말하면 理性的인 行動이라고는 못할 것이니까. 이리하여 나는 「單純한 行動」과 「實踐인 行動」-이 兩者를 이 兩者에 있어서의 「메타·로곤」이란 性格의 有無에 따라서 區別하려는 것이다. 모든 行動이 實踐인 것이 아니라. 「메타·로곤」인 行動만이 實踐인 것이다. 單純한 行動이 종종 파토스의 奴隸가 되어, 「妄動」, 「暴動」에 지나지 않는 行動이 되고말 可能性을 多分히 가졌음에 反하여, 實踐은 언제나 로고스를 內包한 行動-로고스를 따라 發現되는 파토스의 所行으로서 理性的인 行動이 다 「單純한 行動」이 중

중單純한破壞에 끈질 가능성을 多分히 가졌음에 反하여 實踐이 特히 建設과 結合되어 생각되는 原因은 여기있다. 單純한 行動이 個人的 隨意的인 情慾에 달려서 無時로 規律없이 發現될 수 잇음에 反하여, 實踐이 特히 科學的인 認識과 密接한 關係를 잃지 않으려는 原因도 여기있다. 一般으로 종종 理論과 實踐을 典型的인 對概念으로서 規定하고 싶어하나, 나는 理論에 對하여 實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行動을 對置시키고 싶다. 何故요하면, 實踐이란 單純히 理論과 對立되는 概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理論과 行動의 辯證法的 統一이기 때문이다. 實踐은 元來 既說한 바와 갓치 對象과의 矛盾의 克服- 即 레-닌의 所謂 「對立의 統一」이기 때문에, 그것은 本質上 辯證法的인 統一일 뿐만 아니라, 只今 본 것과도 갓치 그것은 理論과 行動의 辯證法的 統一이다.

이와 同時에 實踐은 主體的인 把握樣式 中에서도 行動보다 더 한층 極에 설 것이다. 참으로 身命을 던져서 敵을 克服하려는 사람은 마치 戰場에 臨한 賢將과도 갓치 敵에 對한 確固한 認識과 周到한 觀察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될 터이기 때문이다. 가장 徹底的으로 敵을 克服하려면 衝動的인 行動만으로는 不可能하겠기 때문이다. 衝動的인 行動에는 發惡은 잇어도 가장 徹底的인 把握法인 克服은 없기 때문이다. 主體的 把握은 그럼으로 本來 파토스의인 것이나, 그의 極인 實踐에 이르자, 별서 한 거름 로고스의인 것의 領域에 드러가고 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리라. 여기에 로고스와 파토스의 辯證法이 있다. 實踐은 實로 이 兩者의 辯證法的인 統一이다. 그리하여 이 兩者는 實踐의 契機로서 다음과 갓흔 役割을 맡는다. 即 파토스(또는 行動)은 實踐의 動力이고, 로고스(또는 理論)은 實踐의 指針이다. 그럼으로 實踐을 行動으로서 發現시키는 動力은, 實踐이 가진 파토스의인 要素이겠으나, 그러나 實踐을 참(眞)된 實踐으로 引導하는 指針은, 그의 로고스의인 要素 如何에 달렸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實踐의 「眞偽」, 「正否」, 「善惡」에 對한 詳細한 區別과 論議는 다른 機會로 밀기로 한다.)

나는 아까 危機의 克服은 다못 行動 또는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고 하였다. 이제야말로 이 命題는 嚴密히 訂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알엇을 것이다. 即 危機에 참된 克服은 다못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고. 危機는 勿論 行動에 依하에서만 克服된다. 그러나 모든 行動이 다 危機를 克服할 수 잇는 것은 아니다. 다못 實踐으로서의 行動만이 危機를 正當히 克服할 수 잇는 것이다. 一時의 衝動的인 發惡으로서의 行動도, 그것이 산 힘인 以上, 一時的으론 危機를 克服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잇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克服이라기 보다는, 그 瞬間의 危機의 單純한 破壞라고 하는 것이 맞땅할 것이다.

이 破壞가 끝나자 다시 나타나는 그 危機-이 破壞 그것으로서 생겨지는 새로운 危機,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反之, 危機의 克服은 實로 「메타·로곤」인 行動으로서의 實踐에 依하여서만, 根本적으로 可能할 것이다. 人類가 가진 過去의 쓰라린 經驗으로부터 歸納한 歷史의 法則-現存의 諸事態에 對한 冷靜한 科學的인 認識, 이것을 內包하지 못한 情熱은 참으로 危機를 克服할 수 없는 것이다. 히스테릭한 衝動的인 行動으로만으로는 現代의 切迫한 危機를 根本적으로 克服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危機가 由來된 根源-其의 必然性-모든 歷史的인 事件을 支配하는 法則에 對한 正確한 認識, 이런 것을 內包한 行動으로서의 實踐만이 能히 이 危機를 克服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即 危機가 「메타·로곤」인 行動으로서의 實踐에 依하여서만 克服된다는 것은, 이러한 實踐은 어떤 것이든 危機를 克服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다. 로고스를 가진 實踐, 理論과의 關聯을 內包한 實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當然히 「참(眞)實踐」과 「거짓(僞)實踐」이 있기 때문이다. 理論이 거짓 理論일 때에는 이 實踐은 거짓 實踐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짓 實踐으로서 우리는 危機의 眞正한 克服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리케 結論한다. 即 危機의 克服은 다못 「참(眞)인 實踐」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고.

現代에 있어서 이 切迫한 危機를 克服하려는 努力을 大別한다면, 그것은 불췌키즘과 파씨즘일 것이다. 兩者共히 現代의 危機는 實踐에 依하여서만 克服된다는 點을 強調하는데 잊어서는 共通일 것이다. 다못 우리들의 注意해야만 할 點은, 이 두 가지의 實踐中 어느 便이 참(眞)이며 어느 便이 거짓(僞)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取할은 勿急히 贊否를 決하기 前에, 먼저 이 두 가지 實踐이 가진 로고스의 要素에 對한 根本的인 檢討일 것이다.

- 끝 -